

돼지도체 등급기준개정(안) 및 소매단계 연계방안 마련 협의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안) 및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지난 8월

1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각 각 지소별 실무자가 참석해 개정(안)의 문제점 및 세부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보완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 등급기준 개정(안) 및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일환으로 삼겹살과 복숭에 대한 연구, 유통업체 및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각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돼지도체등급 개정(안) 및 소매단계 돼지고기 등급별 구분관례를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업무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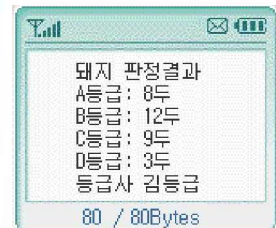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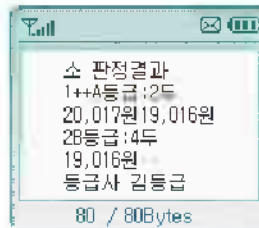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제공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부터 고객 요청에 한해 SMS를 통한 등급판정 결과를 제공해 주고, 홈페이지 고객지원실 등에 질의 내용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실시하고있다.

정보 제공이 늦어져 고객의 불만을 해소 하고 우편이나 이메일의 불편 해결이 목적이다.

향후 등급판정결과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맞춤형 고객정보를 제공방안을 모색해 제한생산 이력정보, 고급육생산 컨설팅을 위한 자료제공과 휴대전화 SMS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있다.

※문의 : 사업관리팀 배혜숙 대리 T.031 390 5535



계란등급판정 신규지정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순맑은 계란', '알짜란', '프레시안' 등 브랜드란을 생산하는 중북 음성 소계 본본관(주)에코 김우식)를 지난 7월 19일부터 계란 등급판정신규업체로 지정했다.

본본관은 현재일 40단계의 계란 처리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일 10단계 이상 계란등급판정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13개소의 계란등급판정 시행 집하장이 14개소로늘어났다.



수해지역농촌 돕기에 구슬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해를 입은 강원도 횡성군 진부면 마평2리를 7월 25일 본소 직원 20여명이 방문해 수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고 부족한 일손을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